

2015 새 설계

박 홍 륜 목포시장

“기업·투자유치 원년...세라믹·대양산단 활성화 올인”



박홍륜 목포시장은 “2015년을 기업유치, 투자유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목포시가 ‘투자유치’와 ‘기업유치’를 올미년의 화두로 삼은 것은 향후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세라믹산단과 대양산단의 분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겠다는 강한 의지의 발로로 해석된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1만1000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해 온 박 시장의 공약과도 맞물린다.

박 시장은 “올 한 해는 대양산단 분양과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 해 분양률 50%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도전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양산단 조기분양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국내외 실물경제에 밝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투자유치 자문관으로 영입한 데 이어 올해는 분양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할 컨트를 타워인 ‘산업단지 정착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해 기업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리스트를 발굴하고 구체화해 투자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세일즈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올 한해 시장 목표를 ▲일자리가 있는 경제기반 조성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균형 있는 지역발전 ▲행복한 복지 공동체 구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정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관광상품 개발과 숙박 인프라 확충에 대한 관심을 보여 온 박 시장은 최근 여수와 통영

민간 전문가 영입 ‘세일즈 행정’ 해상케이בל카 설치 랜드마크로 예술가 마을 조성도 적극 추진

을 직접 방문하는 등 임가내 해상 케이בל카 설치와 유수호 스텔 건립을 적극 추진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박 시장은 “유달산과 고하도의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바다를 횡단하는 해상 케이בל카를 설치하면 경쟁력있는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지난 2010년 민간투자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 상반기 중에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재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앞으로 시민 여론조사를 비롯해 토론회와 시의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해상케이בל카 설치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해법도 내놨다.

또 “유수호스텔은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관광 인프라”라며 “상반기중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 원도심 지역에 건설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올해부터 본격화될 도심 재생사업과 관련, 박 시장은 “목원동 일원의 환경개선을 기반으로 외지 관광객 유인을 위한 각종 도심관광 활성화형

사업들이 추진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차범석·김우진 등 문학인의 생가와 함께 유달 예술타운, 목포 문화재단, 남포 소극장 등 역사와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또 “원도심에 산재한 공가(빈집)를 활용해 예술가의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지난 한 해 ‘톡 톡(Talk Talk) 튀는 소통 투어’로 관심을 끌며 박 시장은 올해도 시민 행복 발로 찾기를 통해 ‘감동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소통의 날’과 ‘시민과의 소통의 날’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 추진도 올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를 위해 2015년 예산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만 2488억원을 배분했다. 이는 일반회계의 47% 선에 달할 만큼 비중이 크다.

박 시장은 “재정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인회관, 노인복지회관, 보훈회관 등을 신축·이전할 계획”이라며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교육·문화 시책들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목포진을 역사공원으로 운영하고 찾아가는 문화공연 확대와 동별 1개소 ‘작은 도서관’ 조성, 원도심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도 추진된다.

2015년 주요 역점 사업은

- ▲대양 일반산업단지 조성(2008~2016년)
- ▲수산식품 지원센터 본격 운영
- ▲서남권 친환경 수산 종합지원단지 조성(2014~2016년)
- ▲고하도 유원지 개발(해상 케이בל카 설치 추진)
- ▲유수호스텔 건립 추진(2015~2018년)
- ▲목원동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실시(2014~2017년)
- ▲옥암 대학부지 개발계획 용도변경 추진(2015~2016년)
- ▲노인회관 및 노인복지관 신축 이전(2015~2017년)
- ▲대양동 일원 종합 장사시설 건립(2009~2015년)

아울러 서남권 최대·최신식 종합 장사(葬事) 시설 건립사업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도 역점을 뒀다. 또한 복지도시 구현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한편 서민시장을 표방한 박 시장은 “서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목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서민지원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목포진 120년만에 역사공원으로 재탄생

시, 환관 제막식 열고 올미년 시무식도

조선 수군의 군사기지였던 목포진(木浦鎭)이 120년 만에 역사공원으로 재탄생,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목포시는 만호동 일대 옛 목포진터 8775㎡에 총 사업비 73억원을 들여 객사를 복원하고 내삼문, 홍살문, 전통담 등을 설치했다. 시는 지난 2일 목포진 역사공원에서 환관 제막식에 이어 6급 이상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환관 출발을 다짐하는 시무식을 가졌다.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 기대=객사는 문헌 고증과 다른 지역 객사 등을 비교해 전통 한옥 익공계 팔작지붕 양식으로 전면 5칸, 측면 3칸으로 제작됐다. 가운데 전정(殿庭)에는 팔매(闕牌)와 전패(殿牌)를 설치하는 등 절제된 역사적 고증으로 복원했다.

객사 현판명은 목포의 객사라는 뜻의 ‘목포지관’(木浦之館)으로 문화재 전문위원인 목포대 김지민 교수가 명명했다. 글씨는 유천 서중견 선생이 썼다.

객사 주변에 조성된 석축은 기존의 옛 석축들을 최대한 활용, 전통 석축쌓기 방식인 ‘막돌 바른층쌓기’ 방식으로 조성됐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 목포진 진입 주변 4개 골목길에 벽화를 그리는 등 ‘목포진 역사공원’을 명실공히 원도심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이다.

목포진은 1439년(세종 21년) 4월 설치된 전라수영의 4개 만호진 중 하나였다. 이후 성종과 연산군 시대를 걸쳐 수군 주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1501년 수군진성이 축성됐다. 그러나 1895년 고종 칙령에 폐지된 이후 1991년 6월 복원 필요성이 제기된 것을 시작으로 유물발굴 조사 등을 거쳐 120년 만에 역사공원으로 변신했다.

◇역사현장에서 올미년 첫걸음=이번 시무식은 통상적으로 시청에서 가졌던 과거와 달리 이례적으로 현장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진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배경에는 새해를 역사의 현장인 목포진에서 의미 있게 내딛겠다는 박 시장의 강한 의지가 깔려 있다. 박 시장은 나라와 백성을 보호했던 선조의 고귀한 정신을 목포진에서 되새기면서 시민을 위한 올미년 새해를 시작해야 함을 공직자들에게 전했다.



목포시가 선조의 얼과 혼이 깃든 역사의 현장에서 2015년 새해를 시작했다. 박홍륜 시장이 2일 만호동 목포진 역사공원에서 6급 이상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시무식’을 열고 있다. <목포시 제공>

있게 내딛겠다는 박 시장의 강한 의지가 깔려 있다. 박 시장은 나라와 백성을 보호했던 선조의 고귀한 정신을 목포진에서 되새기면서 시민을 위한 올미년 새해를 시작해야 함을 공직자들에게 전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진 역사공원이 개관함에 따라 유달산, 목포 근대역사관 1·2관, 근대건축물들과 함께 인근의 삼학도와 연계되는 관광코스로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新 장보고시대 열어가자” 목포상의 신년인사회

목포상공회의소(회장 김호남)는 지난 2일 호텔현대 컨벤션홀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희망찬 새해설계와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일자리 창출, 취업 일변지 전남!”을 캐치프레이즈로 열린 이날 신년 인사회는 각급 기관단체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서남권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덕담과 목포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 시무떡 절단,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진)

목포상의 김호남 회장은 “올미년 청양의 해에는 서남권이 해양가치를 되새기는 해가 될 것”이라며 “미래성장 동력이 될 에너지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자원의 보고 바다를 활용해 신(新) 장보고시대를 열어가자”고 밝혔다.

이어 “산업계의 수요에 따라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맞춤형 인재육성에 포커스를 맞춰 청년이 돌아오는 취업 일변지, 전남 만들기에 상의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광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복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오산	571-7658
양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원곡	961-2339
중양	222-1896
중흥	224-8604
진철	673-1600
진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862

지방지사

광산	0621944-0444	남원시	0631626-1601
군산시	0631467-2500	순창군	0631653-0444
정읍시	0631531-5544	서울보급소	021313-5962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